

여성 경멸 표현물에 항의 빗발

관보 '성차별 격언' 말썽...광고·시사만화 시비도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실리는 여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여성들의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최근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일간지, 시사만화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법령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총무처 발행의 정부 공문서인 '관보'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자투리면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격언'을 계속 실자 여성공무원들이 총무처로 항의전화를 해 24일부터 중지했다.

매일 2만부를 발행, 전국의 관공서와 법률기관,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에 배포되는 '관보'에 '여인 말고는 지옥이 따로 없다' '말없이 거부하는 여자는 반은 동의한 것이다' '여자의 아량중의 하나는 허락하는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정신은 그 육체와 마찬가지로 나약하다' '암탉은 하나의 달걀로 또다른 달걀을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문구가 수십개씩 매일 실려 여성공무원들의 강한 불만을 사왔다.

관보 편집담당관인 총무처 법

무담당관실 이상만 계장은 "〈인간좌우명〉이라는 격언집을 인쇄소에 주고 자투리면이 남을 때마다 잘라 넣으라고 했더니 무심코 내용을 제대로 안보고 집어 넣은 것 같다"면서 "여성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 24일부터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들은 24일 중단된 이후에도 "공문서로서의

는 시사만화중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도 거세다.

〈여성신문〉은 최근 '여성비하의식 가득한 시사만화'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 "시사만화에서의 여성비하하는 여성을 집단에만 파묻혀 사는 무지한 인간이나 정치의식이 전혀 없는 집단으로 묘사하거나 배신·야합 등 정치적 부

'여인 말고는 지옥 따로 없다'등 내용 갖가지 여성단체, TV·일간지서 사보까지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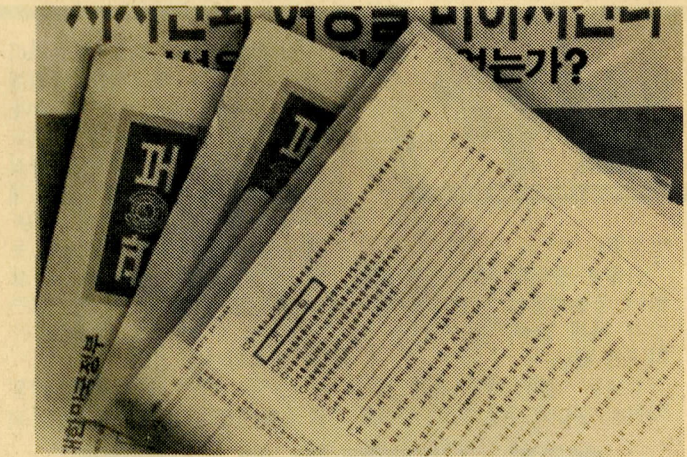
효력을 갖는 관보에 그런 내용이 계속 실려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5일부터 23일까지 배포된 관보도 회수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 등 단체들도 영구적으로 보관될 관보에 그런 내용이 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총무처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각 일간지마다 실리고 있

도덕성의 상징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시사만화의 남성중심성을 비판, 감시할 만화평론과 만화 모니터활동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3당통합후 '민자당'을 여성으로 묘사한 시사만화가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자 "왜 치욕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여자로 주로 그리느냐"는 내용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관보'에 실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들. 성차별적인 출판물 내용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 의사 표시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쪽은 공식회의에서 문제가 된 시사만화의 작가에게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항의전화를 하기로 결의하기도 했었다.

항의전화를 받았던 '한겨레그림관' 박재동 화백은 "만화의 통속성이나 대중성을 무시하고 그림의 소재를 너무 당위성에 맞추어 제한하라는 요구는 무리였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무의식적

인 차원에서라도 성차별이 없나를 한번 더 생각하고 그리는 게 됐다"고 말했다.

84년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프로를 중심으로 메스컴의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작업을 해왔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앞으로 모니터대상을 만화 회보 사보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메스컴 모니터담당 윤현봉 간사는 "무조건 여성을 좋게만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늘 여성, 노인, 가난한 사람 등 소외계층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나를 감시하는 태도를 공식성을 띤 출판물에서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